

##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6회)

金基錫

### 덤비는 思潮와 잠자는 思潮

存在하는 것은 時間에 있어서 무단히 움직이면서 주어진다. 存在하는것은 時間에 있어서 움직이는 한편에 자기를 무단히 限定하면서 주어진다. 자기를 무단히 限定하지안는 한에서 그것은 어떤 것으로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물이 있고 물 아닌 것이 잇음은 물이 물아닌 것에 대하여 자기를 限定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물은 물인 것으로서 存在하게 될 길이 없는 것이다. 물이 時間에잇어서 무단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데 까지던지 자기를 물인 것으로 限定하면서 움직이지 안으면 아니 된다. 흐린 물과 맑은 물이 잇고 막히는 때와 흐르는 때가 잇다고 하더라도 물이 물로서 存在하기위하야는 자기를 무단히 물인 것으로 限定하지안으면 아니 된다. 시냇물과 바닷물 잇고 봄물과 가을 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물이 물로서 存在하기 위하야는 자기를 무단히 물인 것으로 限定하지안으면 아니 된다.

우리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지는 存在者가 움직인다는 것이요. 存在者가 거기에 잇어서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지게 되는 存在者의 性格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存在하는것은 움직이는 것이면서 움직이지 안는 일에 잇어서 잇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변하는 것이면서 변하지 안는 일에 잇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움직이는 時間性에 잇어서 움직이지 안는 限定性에 잇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우리들은 여기서 存在者의 世界와 存在者의 性格의 世界를 구별한다. 存在者의 世界는 時間性的 領域이요. 存在者의 性格의 世界는 限定性的 領域임을 우리들은 본다. 다시 나아가 時間性的 領域이 限定性的 領域에 잇어서 잇고 限定性的 領域이 時間性的 領域에 잇어서 나타남을 우리들은 본다.

理想主義는 움직이는 것 背後에 어떤 眞實한 實在가 잇다고 보았다.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久遠한 發展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았다. 理

理想主義는 存在者를 限定性의 領域에 있어서 理解하려고 힘 썼고, 現實主義는 存在者를 時間性의 領域에 있어서 把握하려고 努力한것이 아닐가. 理想主義는 存在者를 限定性에 있어서 보았기 때문에 모도를 움직이지 않는 다고 보아 한 개의 고요한 觀想의 나라에 드러가기를 원하고 現實主義는 存在者를 時間性에 있어서 보았기 때문에 모도를 움직인다고 보아 한 개의 사나운 實踐의 마당에 나서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한편에는 모도를 잇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모도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모여 섰다. 잇다고 보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라보다가 잠드는 때가 잇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아가면서 덤비는 때가 잇다.

理想主義가 바라보다가 잠자는 때 現實主義는 나아가자고 하고, 現實主義가 나아가면서 덤비는 때 理想主義는 바라보자구 한다. 希臘思潮는 바라보는 思潮이면서 나아가는 思潮이였다. 理想主義思潮이면서 現實主義 思潮이였다. 中世紀의 思潮는 바라보는 思潮면서 잠드는 思潮이였다. 바라보는 理想主義가 잠드는 理想主義로 떠러진 思潮이였다. 『르네상스』 運動은 한 개의 希臘思想의 復興이 였나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르네상스』에서 흐르기 시작한 近代의 思潮속에서 바라보는 思潮와 아울러 發見하는 것이다. 近代思潮의 그릇된 傳承인 現代의 思潮는 近代思潮가 가진 現實主義 思潮의 가장 조흔 것을 버리고 가장 언잔은 것을 받았나니 나아가는 現實主義를 버리고 덤비는 現實主義를 받아 가졌다. 中世紀의 思潮가 가장 언잔은 理想主義 思潮이었던것과 한 가지로 現代의 思潮는 가장 언잔은 現實主義思潮인 것이다. 希臘哲學의 품에서 두 마리 비둘기와 같이 빛나게 出發한 理想主義, 現實主義가 잇었다. 理想主義는 中世紀의 敎父哲學에 와서 본대의 바라보는 理想主義가 아니라 잠드는 理想主義로 잠드는 理想主義조차도 아니라 꿈꾸는 理想主義도 굴어 떨어지고 말었다. 現實主義는 現代의 現實主義에 와서 본대의 나아가는 現實主義가 아니라 덤비는 現實主義로 덤비는 現實主義조차도 아니라 뒤트는 現實主義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말었다.

오늘의 그릇된 現實主義는 『따-원』의 進化論과 『헤-겔』의 辨證法을 내여 세운다. 그리 하여 모도를 鬪爭의 論理克服의 論理에서 說明하려고 한다. 觀念을 떠나 實在를 찾고 理性을 떠나 經驗을 찾고 思惟에 앞서 行動에 나아가고 理想에 앞서 現實에 나아가고 理論에 앞서 實踐에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사람들은 現代의 思潮에 있어서 靜의 概念에 대한 動의 概念의 優越을 말해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는 理想主義가 덤비는 現實主義로 덤비는 現實主義가 거듭 뒤트는 現實主義로 顛落되는 것 을보면서 우리들은 動의 概

念에 대한 靜의 概念의 優越을 말해야 할 것이 아닐가. 觀念論은 動을 모르고 靜을 알었고 現實主義는 靜을 모르고 動을 아나니, 動을 모르고 靜을 앎은 靜을 앎이 아니요. 靜을 모르고 動을 앎은 動을 앎이 아니다. 眞理의 認識에 대한 希臘哲學의 立場조차를 의심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덤비는 現實主義뒤트는 現實主義로 상처받은 現代의 思潮는 우리들을 모라 었던 새로운 哲學을 세우는 길에 내여 보내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